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필승 가이드북』 발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4월 6일(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필승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6회에 걸쳐 발표된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시리즈를 묶은 것이며, 총 6편의 주제를 담고 있다.

가이드북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역대 선거의 투표율과 국정지지율 상관관계, 스윙보터(무당층)의 지형 변화,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전망, 대한민국을 바꾸는 핵심 아젠다인 '행정 통합'의 실효성,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국민의힘의 익숙한 레토릭까지 치밀하게 분석한 실전용으로 제작됐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전국의 당원 동지들과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께서 본 가이드북의 객관적 자료와 정책 논리를 선거 기획 및 대국민 소통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승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 [별첨]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필승 가이드북 주요 내용

### ■ 「① 2026 지방선거, 왜 중요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가지는 국정동력 확보, 민주주의 회복, 경제정책 평가, 지방주도성장과 분권국가로의 지방자치혁신 등 5가지 핵심적인 정치·사회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 「② 지방선거를 결정짓는 숫자들」

‘허니문 선거’, 국정지지율, 이재명정부의 주요 지지층, 지방선거 투표율, 무당층을 키워드로 이번 선거의 주요한 변수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 「③ 대한민국을 바꾸는 행정통합」

행정통합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재명정부의 의지, 그리고 현재 행정통합 난맥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 ■ 「④ 부동산, 마침표를 찍는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무너지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분석하며, 강남 3구의 가격 하락과 부동산감독원 설립 등 시장 정상화의 전격적인 반전 상황을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 ■ 「⑤ ‘혐오의 정치, 매듭짓기」

일상화된 혐오와 낙인문제, 특히 이주민 투표권과 외국인 부동산, 건강보험에 대한 오해를 팩트체크하고, 포용과 질서가 공존하는 이민 관리 체계 등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 「⑥ 지방선거, 이것부터 시작하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로컬 스탠다드’를 제안하며, 생활임금·기본의료·기본교통의 보장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재정자주권 강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